

라오스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과제

주 경 미*

요약

이 논문은 현재까지 라오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재지구 3개소의 현황을 역사, 문화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당면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시도이다. 현재 라오스에는 1995년 등재된 “루앙프라방 역사도시”, 2001년에 등재된 “왓푸 사원과 참파삭 문화경관”, 2019년 등재된 “항아리 평원 - 씨엥쿠앙의 석조 항아리 유적” 등 3개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이중에서 왓푸와 항아리 평원 유적의 경우에는 유적 보존 사업에 한국 정부가 각종 ODA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라오스 역사와 문화사 연구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고 베트남 전쟁의 상흔을 크게 입었던 라오스의 복잡한 역사적 상황과 한국의 라오스 문화유산 ODA 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라오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의 특징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과 라오스의 문화 교류 증진과 한국의 국제 문화유산 ODA 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라오스, 문화유산 ODA 사업, 한국, 왓푸, 루앙프라방, 항아리 평원

*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강사, stellar66@naver.com

I. 머리말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라오스(Laos, Lao PDR)는 중국,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의 나라에 에워싸인 내륙국이다. 최근 라오스는 메콩강 연안의 지정학적 특징을 살린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제 관광 산업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다(이요한 2019; 2020). 이 관광 산업의 중심지는 라오스의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UNESCO World Heritage Site)로 등재된 루앙프라방 역사도시(Town of Luang Prabang)이다. 현재 라오스에는 1995년에 등재된 ①루앙프라방 역사도시, 2001년 등재된 ②왓푸 사원과 참파삭 문화경관(Vat Phou and Associated Ancient Settlements within the Champasak Cultural Landscape), 2019년 새로 등재된 ③항아리 평원 - 씨엥쿠앙의 석조 항아리 유적(Plain of Jars: Megalithic Jar Sites in Xiangkhuan) 등 3개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다.

라오스 정부는 세 곳 모두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루앙프라방 이외의 다른 두 곳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목적 자체가 관광 산업 개발이 아니라, 인류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에 있기 때문이며, 세계유산 등재가 곧바로 개발 중심의 관광 산업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기 시작하면서,¹⁾ 등재지구의 관광 산업 개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는 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진정성(Authenticity)”이 기준이며,

1)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제 문화 ODA 사업, 혹은 문화개발협력(CDC, 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사업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태주(2015) 및 Larsen(2018) 참조.

이는 각 유적에 대한 역사적·문화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다. 등재유적 보호와 개발도 유네스코의 기준을 맞추어 진행 및 관리하므로, 경제적 개발과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등재된 라오스의 세계유산 등재지구 3개소를 중심으로, 각 유적지들의 등재 현황과 가치에 대해서 문화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 유적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겠다. 세계유산 등재는 유산 소유국가가 주도해야하지만, 유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 성과와 보호 제도가 없으면 등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최빈국에서는 유산에 대한 자체적 학술 연구 성과가 거의 없고 국제 학계 수준에 적합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기도 어려우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여건으로 인하여 제도 정비 및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라오스의 현재 등재유산들도 사실 프랑스 식민지시대부터 프랑스 학자들이 조사해온 문화예술사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²⁾ 라오스의 자체적 연구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십 년간 라오스의 두 번째 세계유산인 왓푸(Wat Phu / Vat Phou) 유적군에서 문화유산 ODA사업을 시행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려왔다.³⁾ 한국의 라오스 문화유산 ODA 사업은 대부분 해당 유적의 학술연구사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현지 유적에 대한 단기 복원 성과에만 치중해온 경향이 강하고, 유네스코

2) 프랑스 식민지 시대 이후 라오스 세계유산 등재지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설적 연구서로는 Parmentier(1954a-b)와 Giteau(2001) 참조.

3) ODA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뜻한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2009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되면서 각종 ODA 사업을 국가 외교정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한국의 라오스 ODA사업은 2003년 시작되었으며(이요한 2009), 라오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복원 ODA사업은 2011년 한국의 문화재청과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의 MOU 체결로 시작하여 2021년 현재까지 한국문화재단에서 시행해왔다(한국문화재단 2015; ODA18인 2020).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왓푸 유적군 <홍낭시다 유적 보존 복원사업>으로, 2020년 제 1차 복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2021년부터 제 2차 복원 사업이 시작되어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의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정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만 접근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국제 문화유산 ODA 사업을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어려움이 많다. 한국과 라오스는 1974년 처음 수교하기 시작했지만, 1975년 라오스의 공산화와 함께 단교하여, 국내에서 라오스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⁴⁾ 한국과 라오스의 수교 재개는 1995년에 이루어졌지만, 양국 간의 본격적인 문화교류는 한국이 라오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복원 ODA사업을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라오스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프랑스어로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언어적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통 “세계유산”이라고 알려진 유네스코 ①“세계유산지구(World Heritage Sites)”는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을 기반으로 등재되는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가진 인류 공통의 유산들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하여 보유한 국가가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년 심사하여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한다. 1972년 처음 세계유산협약을 제정하고 등재할 때에는 ①-1“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①-2“자연유산(Natural Heritage)”, ①-3“복합유산(Mixed Heritage)” 등 등 부동산 유적들만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후세에게 전승되어야 할 “유산(heritage)”의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1995년부터는 “세계기록사업일반운영지침”이 채택되어 ②“세계기록유산(World of Memory)”이 별도로 등재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에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채택으로 ③“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별도 등재되기 시작했다. 현재 이 세 종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별도의 협약과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등

4) 라오스 역사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양승운 외(2005); 이요한(2013); 조흥국(2010; 2013; 2016a; 2016b) 참조. 이 연구들은 근현대사 중심이므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각종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고대 명문 및 불교문화사 연구는 거의 없다. 라오스 역사에 대한 주요 외국어 개설서로는 Evans(2002); Pholensa(2006); Ivarson(2008) 참조.

재 방식이나 기준도 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기록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제외한 세계유산지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겠다.⁵⁾

II. <루앙프라방 역사도시>의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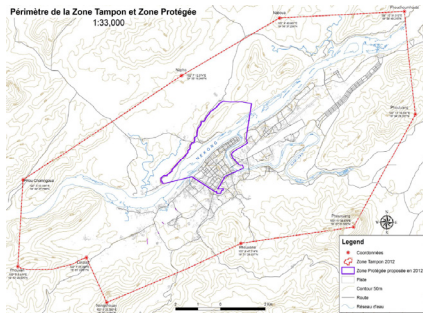
1995년 라오스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은 1353년 라오스의 첫 번째 왕조인 란쌍(Lan Xang) 왕조를 창건한 파응움(Fa Ngum, 1316-1393)왕의 고향이자 수도였다(도 1). 프랑스 식민지시대와 현대기의 라



도 1. 루앙프라방 전경 (Roland Neveu 촬영).
출처: Davies 2007, 4

오스 왕실이 있던 곳으로서, 식민지시대 이후 동서문화의 전통이 융합한 독특한 근대적 도시 경관이 잘 남아 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 (iv), (v)에 근거하여 등재된 루앙프라방의 문화적 가치는 라오(Lao)족의 전통 건축과 함께 근대기 유럽, 특히 프랑스의 식민 통치자들이 세운 근대기 건축이 융합된 도시

5)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종류와 관련 협약, 등재 기준, 각국별 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발간한 단행본(2010) 참조. 최근에는 세계유산의 개념 변화와 해석 충돌의 문제로 인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이와 관련된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가 한국 세종시에 유치되어 2021년 개소할 예정이다(문화재청 2019). 아직까지 라오스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예가 하나도 없으나, 2017년에 라오스의 첫번째 인류무형유산으로 <라오 족의 켄 연주 음악(Khaen music of the Lao People)>이 등재되었다. 당시 등재신청에는 전주에 있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한국 문화재청, 문화재재단이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비앙케오 수크사밧디 2013).



도 2. 루앙프라방 등재구역 범위 지도, 2013년 수정본. 출처: 유네스코 사이트

유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UNESCO 2004). 루앙프라방의 등재구역 범위는 현재 보호구역 820ha이며, 2013년 새로 확대 및 보완지정된 완충구역의 범위는 12560ha이다(도 2). 루앙프라방은 현재 개발도상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유적 중 하나이다.

1. 역사적 현황과 주요 유적

라오스 북부의 고대 도시이자 불교 성지인 루앙프라방은 메콩강과 그 지류인 남칸(Nam Khan)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 위치한다. 도시 중앙의 나즈막한 푸시(Phou Si)산을 중심으로 길게 난 도로를 따라서 오래된 불교 사원들과 왕궁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루앙프라방의 역사는 랐쌍 왕조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으며, 이전의 이름은 무앙수아(Muang Sua), 혹은 씨엥통(Xieng Thong)이었다. 크메르 제국의 공주와 결혼한 파웅웁왕은 랐쌍 왕조를 창건한 이후 상좌부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크메르에서 “프라방(Phra Bang / 파방 Pha Bang)”이라는 성스러운 불상을 수도 루앙프라방으로 모셔왔다(도 4). 이후 라오스 왕실은 대대로 불교를 숭앙하고 불교 사원의 건설에 막대한 후원을 했다. 1560년 셋타티랏(Setthathirath, r.1548-1571)왕이 수도를 비엔티엔(Vientien)으로 옮기면서 한동안 루앙프라방은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Stuart-Fox 1998).

수리아왕사(Sourigna Vongsa, r.1637-1694)왕의 사후에 랐쌍 왕조는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18세기말 주변국들에게 각각 점령당했다. 라오스는 1893년부터 195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당시 프랑스는 루앙프라방 왕실을 존속시켰다(양승윤 외 2005). 1904년 즉위한 시사왕 웅(Sisavangvong, 1885-1959)왕은 당시 프랑스 건축가가 세운 근



도 3. 루앙프라방 국립왕궁박물관 건물 전경
라오스 루앙프라방. 1904~1909년 건축. 사진: 주경미

대식 건물인 루앙프라방 왕궁에 거주하였다. 1975년 라오스의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라오스의 왕정이 폐지되면서(이요한 2013), 이 왕궁은 국립박물관으로 전환되었다(도 3; Vongvilay 2015a, 280). 이후 한동안 폐허에 가깝게 침체되어 있던 루앙프라방이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부터이다(Berliner 2012, 771).

프랑스 식민지시대와 근대 라오스 왕실, 그리고 전통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루앙프라방에는 복잡한 라오스의 현대사만큼이나 복잡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의 등재 구역은 29개의 마을(village)과 611개소의 등록건물(inventory buildings), 183개소의 보호습지(protected wetlands)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Leong 2016). 이 중에서 등록건물은 라오스 전통 양식 건물, 프랑스 식민지시대 서양의 영향을 받은 서양식 건물, 그리고 근대기의 여러 양식들이 뒤섞인 혼종양식 건물 등 크게 세 종류의 양식으로 나누어진다(UNESCO 2004, 28). 라오스 전통 양식의 건물은 목재와 대나무 등으로 세우는 목조건축으로, 용도에 따라서 일반 주거용 건물과 종교용 건물로 나누어진다. 그중에서도 역사와 문화의 중심



도 4. 프라방 불상. 루앙프라방
국립왕궁박물관 소장.
출처: Heywood 2014, 167.

이 되는 것은 라오스인들의 사상과 생활의 중심이 되는 유서깊은 종교용 건물인 “왓(Wat / Vat)”, 즉 불교사원들이다.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의 명칭은 파웅 움왕이 크메르에서 가져온 유명한 프라방 불상에서 유래했다(도 4). 라오어로 루앙은 “커다란”이라는 뜻이며, 프라방은 “황금으로 만든 불상”을 뜻한다. 이 불상은 높이 83cm의 금제 불상으로, 두 손바닥을 모두 가슴 앞에서 들어 올려서 내보이는 독특한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태국식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제작하여 크메르로 전해졌다

가, 크메르 공주이자 파웅움 왕의 왕비인 카우켕야(Kaew Keng Ya)의 요청으로 란쌍 왕조로 다시 전래되었다고 한다(Doungwilai 2012, 53). 현재 이 불상은 루앙프라방 국립왕실박물관 내에 있는 “왓호파방(Wat Ho Pha Bang)”이라는 사원 건물 안에 모셔져 있다(Heywood 2014, 166-167). 전승에 의하면 이 불상은 왕궁 내에 모셔져 있었다고 하며, 정세 변화에 따라 왓마이(Wat Mai)와 왓위순(Wat Vison) 등 여러 사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라오스 왕실의 천도 및 멸망과 함께 18세기에는 태국 톤부리로 옮겨졌다가 1780년 태국 왕의 허가를 받아 다시 라오스로 되돌아왔다(Doungwilai 2012).

현존하는 불상의 진위와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이 불상은 지금까지 라오스 왕실과 국가의 상징이자 라오스인들의 정신적 지주이며, 동시에 루앙프라방 도시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불교적 성물(聖物)로 숭앙되고 있다. 매년 4월 3일간 거행되는

“분 피마이(Boun Pimai)”

라는 전통 신년의례에서
는 이 불상을 왕궁에서부
터 왓마이로 옮기는 행상
(行像) 의례와 불상에 물
을 뿌리고 땅을 정화하는
축제 의례를 거행한다



(UNESCO 2004, 29).

루앙프라방 문화유적

의 중심은 라오스 불교문

도 5. 왓씨엥통의 주불전 전경. 향우측면이 주불전
입구임. 1560년 창건, 2012년 보수. 라오스
루앙프라방. 사진: 주경미

화의 성지들인 34개소에 달하는 전통양식의 불교 사원들이다. 왓아함(Wat Aham), 왓마이, 왓마노롬(Wat Manorum), 왓타루앙(Wat That Luang), 왓위순나랏(Wat Wisunarat), 왓씨엥통(Wat Xieng Thong, 도 5) 등 수많은 사원들은 대부분 “심(sim)”이라고 부르는 좁고 긴 장방형 평면의 수계당(受戒堂, Ordination Hall) 겸 주불전(主佛殿) 건물이 중심이다.⁶⁾ 주불전 내부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으며, 주불전 바깥에는 지붕 중앙에 “독소파(dok so fa)”, 혹은 “티(thi)”라고 부르는 금색의 상륜 장식과 지붕 모서리에 나가(naga) 모양의 장식이 달린 점이 특징이다. 사원에 따라 주불전 주위에 종루, 고루, 장경각(藏經閣), 그리고 붓다와 승려들의 사리를 모신 탑(塔)에 해당하는 “타트(that)”과 정령이나 불상을 모시는 작은 사당들을 배치하고, 사원 한쪽에는 승려들이 거주하는 승방(僧房) 공간인 “꾸띠(kouti)”가 있다(UNESCO 2004). 루앙프라방의 전통 불교 사원 건축 양식은 프랑스 학자 람퐁(Rampon)의 형식 분류에 따라 크게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Rampon 2003;

6) 루앙프라방 지역 불교사원의 전통미술 양식에 대해서는 Parmentier(1954a-b)의 선행 연구를 참조. 이후 건축에 대해서는 람퐁(Rampon 2003)과 랄(Lall 2014) 등의 연구가 있으나, 불교조각과 공예, 벽화 등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



도 6. 왓씨엥통 주불전 내부 본존 불상 전경. 라오스 루앙프라방. 사진: 주경미

UNESCO 2004; Lall 2014),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박정아 2016).

루앙프라방의 수많은 사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원은 메콩강과 남칸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 위치한 왓씨엥통이다. 1560년 셋타티랏왕이 창건한 이 사원은 “보리수(Thong, Bodhi Tree) 도시의 사원”이라는 뜻이다. 사원 주불전 외벽에는 사원의 이름과 관련된 보리수를 독특한 색유리 모자이크기법으로 표현해 놓았다. 이 사원은 창건한 이후 여러 번 보수되긴 했지만 화재를

당한 적이 없는 신성한 사원으로 유명하다. 1887년 루앙프라방 지역의 사원들이 중국에서 쳐들어온 “호(Haw)” 일당들에 의해서 모두 불타버렸을 때에도 이 사원은 유일하게 원상을 보존했다고 한다. 20세기 이후 여러 차례 보수된 주불전 내부에는 오래된 향마촉지인의 석가불좌상이 모셔져 있고(도 6), 양측 내외벽에는 18세기 이후 전통 양식을 따라서 그려진 벽화가 남아 있다(도 7; Heywood 2014).

내벽의 벽화는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을 다룬 불전도(佛傳圖)나 본생담과 같은 불교적 내용이나 꽃과 나무, 공양인 등 다양한 문양과 주제를 검은색, 혹은 붉은색 바탕에 금색의 스텐실(stencil)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내벽 벽화 중의 향마성도(降魔成道) 장면으로(도 7), 보리수 아래의 석가모니와 그 아래에 머리카락에서 물을 짜내며 서 있는 지모신, 그리고 코끼리와 말을 타고 공격하는 마왕의 군대를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조형화하였다. 스텐실 기법은 루앙프라방 불교사원의 독특한 벽화 제작기법으로, 문양대로

구멍을 뚫은 도안판을 이용하여 금박을 바르는 기법이다. 이때 사용한 도안판은 여러 번, 혹은 여러 곳에 재사용되기도 한다. 주불전 장엄에 사용된 스텐실기법과 색유리 모자이크기법은 전통적인 옷칠기법이 근세 이후 서양 문화의 영향을



도 7. 항마성도도, 왓씨엥통 주불전 벽화.
라오스 루앙프라방. 사진: 주경미

받아 발전한 새롭고 독특한 장식기법이다. 루앙프라방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예기법은 혼란한 현대사의 영향으로 한동안 거의 단절 및 변화되어,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계승 가치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왓씨엥통을 제외한 다른 사원들은 모두 1887년의 화재로 소실되어 현대에 재건한 것이다. 물론 벽돌이나 돌로 세운 탑의 경우에는 화재로 소실되지 않아서 좀 더 오래된 양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교가 늦게 전래된 루앙프라방 지역 불교 사원의 건축 및 미술 양식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도 상당히 근대적이며 혼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루앙프라방의 중앙에 위치한 푸시 산 정상에 세워진 황금색의 탑인 타츠시(That Chomsi) 사원은 1804년에 세워진 것이며(Heywood 2014, 106), 왕실의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왕실사원 왓타루앙은 1919년에 창건되었다(Heywood 2014, 126). 이렇게 재건 및 신축된 사원 이외에도 세계유산 등재구역 내에 있는 수많은 일반 주거용 건축들은 지금도 꾸준히 재건되고 있다. 이러한 등록건물들의 보수와 재건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경관 변화와 함께 심각한 진정성 논란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문제가 루앙프라방 지역이 당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 세계유산으로서의 당면 과제

세계유산 등재 당시 루앙프라방에는 이미 프랑스 식민지시대에 세워진 서양식 건물과 혼합식 건물이 다수 있었다. 당시 등재 핵심구역 내의 1140개소 건물 중에서 라오스 전통 양식의 건물은 439개소였기 때문에 약 1/3 정도에 불과했다(Bear 2020, 411). 전통 양식의 건물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목조건축이었지만, 등재 이후 꾸준히 거주인의 사용 목적과 건물의 내구성 등의 문제로 건물의 증축과 변형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 이후 외국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핵심구역 내의 건물 용도가 계속 변화된 것이 이 지역 경관 변화와 진정성 논란의 핵심이다. 2016년의 연구에 의하면 1999년 루앙프라방 지역에는 429개소의 주거용 건물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주거용 건물이 231개소로 줄어들었으며, 그 대신 141개소의 주거용 건물이 관광객을 위한 호텔, 레지던스 등으로 바뀌었다. 또한 1999년에는 66개소에 불과하던 관광객용 건물은 2009년에는 네 배 이상 늘어나서 252개소가 되었다(Leong 2016, 9).

건물 용도의 변경과 함께 건축 양식도 크게 변화되었다. 봉비라이의 연구에서는 루앙프라방 지역의 전통 양식 건물 5채가 주택 개조를 통해서 변화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Vongvilay 2015b), 이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택의 용도와 건축 재료의 변경 문제였다. 특히 낡은 목조 주택들이 대부분 서양식, 혹은 현대식 건축 재료를 이용하거나 벽돌로 1층 건물을 짓고 그 위에 목조로 2층을 올리는 방식으로 개조되면서, 전통 양식의 건물들이 대부분 현대화된 혼종 양식, 혹은 국제양식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서양 학자들에 의해서 역사도시로서의 진정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루앙프라방 지역의 근대식·혼종적 양식의 건축물 증가와 핵심구역 내의 외부 투자자, 혹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루앙프라방 역사도시의

진정성 훼손 논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의 보존과 관리 및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례로 주목받았으며, 지금도 유산의 진정성 보존과 개발과 관련된 계속 다양하고 복잡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⁷⁾ 특히 라오스를 통치했던 프랑스인들의 관점에서, 피지배층이었던 라오스 주민들의 빈곤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막연하게 전통성의 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루앙프라방 역사도시 내 라오스 주민들의 전통성과 진정성 유지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불교도인 현지 주민들과 외부인인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의 문화적 시각 차이와 서양인 중심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발과 불평등, 종교의례의 갈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등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빈곤층에 가까운 최빈국의 세계유산지구 루앙프라방 주민들이 스스로를 위해 추구했던 “오래된 집을 고친다”는 경제적 발전 도모 행위들은 역사도시로서의 루앙프라방 경관의 변형을 가져오면서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보존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해충돌하게 되었다. 건축과 도시개발 분야, 그리고 불교의례와 사상과 관련된 무형유산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루앙프라방의 유산 진정성의 성격과 범위 및 훼손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실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들이 당면한 공통된 난제이다. 다만 2015년 이후 유네스코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계유산과 문화 사업에서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21세기적 관점에서는, 20세기 후반까지의 문화유산 보존에서의 엄격성 유지

7) 세계유산지구 등재 이후 루앙프라방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일어난 경관 및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국제 학계에서 심도깊게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Long 2006; Starin 2008; Suntikul 2008; Dearborn 2009; Berliner 2012; Leong 2016; Tam 2017; Bear 2020; Wilcox 2020. 이 중에서도 루앙프라방 유산의 다층적 성격을 다각도로 분석한 베를리너(2012)의 논문은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이전에 발표된 선행적 연구로서 특히 중요하다.



도 8. 왓시엥무앙 전경. 라오스 루앙프라방.
사진: 주경미

정책과는 달리, 점차 주민과 유네스코 전문가, 외국 관광객들의 상호이해가능한 범위에서의 지속적 보존과 개발을 중시하는 쪽으로 점차 시각이 변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루앙프라방 지역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를 위해서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이 지역의 불교사원을 복원하는 전통 기술 전수 사업이다. 라오스의 전통 공예 및 건축 기술을 가진 장인(匠人)들의 수는 복잡한 현대사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현재의 장인들도 대부분 고령화되어 작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네스코에서는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루앙프라방 역사도시 경관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2000년대부터 전통 공예 및 건축 기술의 전승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왓시엥무앙(Wat Sieng Mouang) 사원에 세워진 전통 건축·공예기술학교의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도 8). 1853년 건립된 왓시엥무앙은 원래 전통 불교 음악을 전수 하던 곳이었다. 2000년 10월부터 이 사원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라오스 전통 미술 및 건축·공예기술 전수를 위한 루앙프라방 유네스코 훈련소(UNESCO Training Centre for Laotian Traditional Arts and Building Crafts, Luang Prabang)>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루앙프라방 불교 사원의 전통 건축 및 공예 기술들을 라오스인들에게 가르치는 전문학교로 운영되기 시작했다(Kuttkhao 2010).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통 공예 및 건축 기술로는 라오스 전통 문양 도안 그리기, 벽화 그리기, 옷칠 공예, 금박 스텐실 공예, 도금기법, 유리 모자이크 공예, 석회기법, 전통 소조기법, 석회 강화기법, 목조각, 청

동주조 등 십여 가지 이상에 달한다(Khutthao 2007). 전통적으로 루앙프라방의 불교사원 건축 및 미술 양식과 기술은 승려들 사이에서만 전수되었지만(도 9), 현재는 일반인 중에서도 기술을 배워서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계승에 참여하



고 싶은 희망자들에게는 교육과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루앙프라방 지역의 전통 기술 전승 교육 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진정성 보존과 계승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동남아시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보호 정책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향후 이러한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서 루앙프라방의 전통 문화적 경관이 라오스인들에 의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보존 및 계승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 9. 왓 시엥무앙의 전통 공예건축기술학교의 수업 내용. 라오스 루앙프라방. 사진: 주경미

Ⅲ. <왓푸 사원과 참파삭 문화 경관>의 현황과 과제

라오스 남부 참파삭(Champasak) 주에 위치한 왓푸 사원과 참파삭 문화경관은 크메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대 유적이자 문화 경관이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iii), (iv), (v)에 근거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유적은 해발 1425m의 푸카오(Phou Kao)산을 중심으로 산꼭대기부터 강변까지의 약 10km에 걸친 공간에 사원과 도시 관개 시설 등이 힌두교적 관점에서 배치된 독특한 문화 경관을 보여준다. 전체 면적 39000ha에 달하는 등재지구는 푸카오산을 중심으로 하

니카 석비(Devānīka Stele, K365)>이다(Coedes 1956). 현재 왓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석비에는 5세기의 제왕 데바니카가 이 지역에 와서 성스러운 링가가 모셔진 산의 성소에 봉헌을 올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석비 외에도, 첸라(Chenla, 眞臘)의 왕으로 추정되는 마헨드라바르만(Mahendravarman, r. 600-616년 경)왕이나 자야바르만(Jayavarman) I세(r. 657-690년경) 등과 관련된 명문들이 여러 점 발견되어, 이 지역이 프리앙코르(Pre-Angkor)시대, 혹은 학자에 따라 첸라 시대로 부르는 선(先) 크메르 문명의 문화적 중심지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왓푸 사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크메르의 앙코르 왕조시대 925년 경의 명문과 1139년명의 수리아바르만(Suryavarman) II세 관련 명문 등이 발견되어, 크메르 제국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록들로 확인되었다(Lorillard 2010; 2018). 이 지역에서 발견된 수십여 점의 고대 명문들에는 이 지역에 “링가파르바타(Lingaparvata)”, 혹은 “바드레쉬바라(Bhadresvara)”라고 불리던 힌두교의 쉬바신이 거주하는 성산(聖山)을 중심으로 “크룩셰트라(Kurukṣetra)”와 “쉬레스타푸라(Śreṣṭhapura, 혹은 쉬레스트라푸라 Shrestrapura)”, “링가푸라(Lingapura, 링가의 도시)”라는 고대 성소, 혹은 도시들이 있었다고 전한다. 최근에는 앙코르 시대 크메르 제국의 선행 문화 양식인 프리앙코르시대 문화의 흔적들이 참파삭 지역 동쪽의 아타프(Attapeu) 지역에서도 새롭게 확인되어서(Lorillard 2014), 이 일대의 크메르 제국 이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왓푸 유적군은 성스러운 링가의 산인 푸카오산과 그 아래의 왓푸 사원, 그리고 메콩강 건너편의 토모(Tomo) 사원 유적과 인근의 도시 유적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왓푸 유적군 안에는 왓푸 사원 이외에도 흥낭시다 사원, 타오파오(Thao Tao) 사원 등 여러 유적이 있다.⁸⁾ 푸카오산기슭에 자리잡은 왓푸 사원은 쉬

8) 왓푸 유적군의 구체적인 현황은 왓푸 유적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참조(Lao PDR



도 11. 왓푸 사원 전경과 고대 왕도의 길. 라오스 참파삭. 사진: 한국문화재재단

바신을 위해서 봉헌된 대형의 힌두교 사원으로(도 11), 초기에는 목조 건물이었으나 이후 석조와 벽돌로 세운 사원으로 개축되었다. 현존하는 유적은 크메르의 앙코르 왕조시대인 11-12세기 경에 재건된 것으로, 전형적인 앙코르시대 힌두사원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두 개의 거대한 바라이(Barai)부터 6단의 테라스를 올라가면 산중턱 맨 위쪽에 주신전이 자리잡고 있는 장축 방향의 배치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쪽에 자리한 왓푸 사원의 주신전은 원래는 힌두교의 쉬바신, 혹은 링가(linga)를 봉안했던 힌두교 신전이었으나, 지금은 불상을 봉안한 불교 사원으로 변형되었다. 입구는 동쪽 방향이며, 벽감과 박공 부분에 가루다를 탄 비슈누상이나 코끼리를 탄 인드라상을 비롯한 다양한 힌두교 신상들이 새겨져 있다(한국문화재재단 2020).

왓푸 주신전 뒤쪽의 암벽에는 다면다비의 힌두교 신상들과 코끼리

2001). 문화유산 ODA사업으로 홍당시다 유적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재단에서는 2020년 왓푸 유적군에 대한 가이드북을 국문, 영문, 라오스어 등 3개국어 판으로 발간하여 큰 도움이 된다(한국문화재단 2020).



도 12. 트리무르티 상 부조, 크메르 왕조 시대 11-12세기. 왓푸 주신전 뒤쪽
마애조상. 사진: 한국문화재재단

상, 불족(佛足) 등이 조각되어 있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을 성수(聖水)로 모시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각종 마애부조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4면 10비의 입상으로 표현된 쉬바를 중심으로 브라흐마와 비슈누가 삼존 형식으로 배치된 힌두교의 트리무르티(Trimurti, 三神) 상이다(도 12). 능화형의 벽감 안에 표현된 이 세 신은 11세기 이후 크메르 문화권에서 힌두 탄트리즘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도상으로 주목된다. 특히 주존으로 표현된 쉬바상은 원래 다섯 개의 머리와 10개의 팔로 표현되는 사다시바(Sadasiva) 도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궁극적 존재로서의 쉬바 신앙이 성산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었음을 알려준다.⁹⁾ 푸카오산이 옛날

9) 이 마애부조에서는 쉬바의 얼굴 중 뒷면이 생략되어 4면으로만 표현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른쪽 팔 중 하나는 파손되어 현재는 9비만 남아 있다. 5면 10비의 사다시바 도상은 8세기경 인도에서 등장하는 <비슈누다르마모타라 푸라나(Visnudharmamottara Purana)>와 같은 힌두 제의문헌들을 근거로 조성되었으며, 인도에서 이러한 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10세기 이후 벵갈 지역에서 유행한다. 사다시바는 그 자체

부터 성스러운 링가로 불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이 마애상은 11세기 이후 왓푸 사원의 재건 과정에서 당시 크메르 문명에서 유행한 사다시바 상을 중심으로 발전한 새로운 힌두 트리무르티 사상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¹⁰⁾ 이 조각을 비롯한 왓푸 사원과 주변의 마애조각들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시대 미술 양식과 베트남의 미선(My Son) 유적의 양식과 연결되면서도 나름대로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양식과 도상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미술사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2. 세계유산으로서의 당면 과제와 한국과의 관계

현재 왓푸 유적군은 한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지원을 통해 꾸준히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오스에 있는 고대 크메르 문화 유적이므로, 라오스에서의 관심보다는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학자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1996년부터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에서 본격적인 국제간 공조 복원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현재 주사원 아래쪽의 난디 성소는 이탈리아 팀에서 복원을 했으며, 남쪽 사당과 북쪽 사당은 인도와 프랑스가 복원하고 있다(한국문화재단 2020, 156). 왓푸 유적군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라오스 자체의 전문 인력 및 경제적 여건의 부족으로, 유적 보존 사업이 세계 각국의 지원 아래에서 각각 다른 방식의 국제 원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

가 링가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크메르 문명권에서는 피마이 출토 금동상이나 스독캇툼 명문 중 등에서 사다시바 신앙이 확인되므로, 9세기 이후 앙코르 왕조를 중심으로 유행했다고 추정된다(Srinivasan 1997; Bunker 2004).

10) 최근 이 상의 도상을 링가의 출현을 상징하는 “링고드바바(Lingodbhava)”로 해석한 새로운 견해가 김용준 선생에 의해서 발표되기도 했는데(한국문화재단 2020, 66), 주존의 특징은 확실하게 사다시바 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과 여러 조연을 보내주신 한국문화재단의 전범환, 백경환, 김용준 선생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여러 나라의 국제간 공조 긴밀화와 라오스 입장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는 현실적으로 각국에서 온 사업 참여자들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2011년부터 유적복원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 왓푸 사원에서 조금 떨어진 홍낭시다 사원을 복원하고 있다(도 13). 한국의 왓푸 유적군 <홍낭시다 유적 보존 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시행



도 13. 복원사업 이전의 홍낭시다 사원 전경. 라오스 참파삭 지역. 사진: 한국문화재단

해왔으며, 2021년부터 제 2단계로 들어가는 중장기 사업이다(한국문화재단 2015; 백경환 2019; 한국문화재단 2020).¹¹⁾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에서는 유적 내 및 인근 지역의 발굴조사와(한국문화재단 2017; 2019)과 현존 석조 유물들의 실측 조사, 암석 및 토양 분석과 보존처리 등이 진행되었다(김호수 외 2017; 이찬희 외 2017; 전유근 외 2019a; 진홍주 외 2019). 2018년과 2019년에는 건물지 발굴 조사과정에서 가네샤 상(이치현 2018)과 금동제 요니(Yoni) 및 진단구 등이 발견되어 보존처리 되었으며(문화재청 2019a; 이재성 외 2019), 갈유 도기편을 비롯한 유물들도 발견되어 분석되었다(전유근 외 2019b). 최근 한국문화재단의 홍낭시다 유적 복원 사업을 비롯하여 동남아 지역의 문화유산 ODA 사업에 참여했던 문화유산 복원 관계자

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왓푸 사원군 유적에서의 라오스-국제협력 프로젝트 현황과 한국 문화유산 ODA 사업팀의 왓푸 유적군 사업 개황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재단(2020, 156-157)의 연표 참조.

들의 현장 이야기들이 책으로 출간되어 주목된다(ODA18인 2020).

현재 진행되는 각국의 왓푸 유적군의 보존 및 관리 사업은 대부분 무너진 건축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중심이다. 그러나 한 유적의 여러 건물들을 각각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원하거나 혹은 지원 기간의 종료로 미완성 복원으로 끝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또한 기존 연구서들이 모두 프랑스어로 되어 있고, 오래된 자료는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라오스인들 입장에서는 라오어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번역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이 없으며, 한국 사업단의 경우에도 이러한 언어적 어려움은 많다. 한편, 왓푸 유적군 인근도 뒷장에서 살펴볼 씨엥쿠앙의 항아리 평원 지역처럼 현대의 전쟁 중에 투하된 각종 불발탄의 위험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지역 조사와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왓푸 유적군의 문화적 성격과 역사에 대해서는 앙코르 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근대 이후 라오스를 식민지화했던 프랑스 학자들이 다소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연구해왔을 뿐, 중국 사서나 각종 비명에 남은 문자자료들과의 비교 연구나 인근의 아타페주의 프리앙코르시대 유적이나 메콩강 북쪽의 지역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연구는 식민지시대에 시작된 프랑스 학자들의 선행 연구에 의존해온 경향이 강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각종 발굴 및 복원 사업에서 새롭게 밝혀진 자료들을 참고하여 향후 왓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역사 및 문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프랑스 학계의 연구 성과도 거의 소개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이 시기 역사, 문화 연구에 중요한 고대 크메르어 비문 연구가 전무한 상황은 국내 학계의 왓푸 유적 연구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의 문화유산 ODA 사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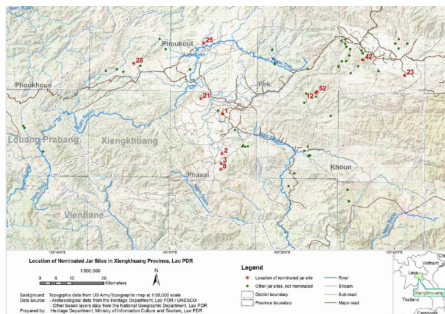
는 라오스인들과 ODA 사업에 참여하는 다국적 연구자들이 탈식민주의적이면서도 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국제적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기존 연구를 뛰어넘는 학술적 성과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라오스인들과 현지에서 진행되는 한국의 각종 사업들은 라오스 내에서 상당한 호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 처리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이 발전해 있으며, 식민지시대의 역사연구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한국 문화를 창출해나가는 한국 전문가들이 가진 장점은 라오스 문화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한국의 라오스 문화유산 ODA 사업에 대한 좀 더 국제적 학계 연구 성과 수준에 걸맞는 차원에서의 전문가들의 학술적 지원 및 국제사회에서 국제어로 된 연구 성과의 발표 등을 통해서, 라오스 문화유산 연구에 대한 한국 학계의 국제적 문화 위상을 함께 높여갈 필요가 있다.

IV. <항아리 평원- 씨엥쿠앙의 석조 항아리 유적>의 현황과 과제

씨엥쿠앙의 항아리 평원 유적은 2019년 등재 기준 (iii)에 의거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독특한 고대 유적이다. 라오스 북부지역의 씨엥쿠앙 고원 지대부터 루앙프라방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거대한 석조 항아리들이 모여 있는 신비한 유적이다(도 14, 15).

현재 등재된 핵심구역은 전체 173.65ha이며 완충구역은 1012.94ha에 달한다.¹²⁾ 라오스 북부 지역에는 이러한 석조 항아리 유적이 상당히

12) 등재구역의 구체적인 유적 분포도와 현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4권의 현황과 지도를 참조(Lao PDR 2019a-d). 개괄적인 유적 현황 요약은 Lao PDR(2019a, 6-7) 참조.



도 14. 향아리 평원 유적 분포도.
출처: Lao PDR 2019a, 23

많지만, 이번에 등재된 지역은 비교적 유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씨엥쿠앙 지역의 15개소에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유적의 현황을 살펴 본 후, 세계유산으로서의 향후 과제와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1. 역사적 현황과 주요 유적

라오스 북부 지역의 향아리 평원 유적은 19세기 말 유럽인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어 근대기 서양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독특하고 유명한 아시아의 관광지 중 하나였다. 이 거대한 석조 향아리들이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점이 많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고대 분묘 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의하면, 씨엥쿠앙의 향아리 평원 유적 중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지역은 총 59개소에 2100여개의 석조 향아리들이 흩어져 있다(Lao PDR 2019a, 34). 그중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로 등재된 곳은 석조 향아리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11개 지역의 15개소 유적이다. 이 유적들의 성격은 ①대형의 석조 향아리들이 분포된 지역, ②채석장 유적, ③생산 유적, ④소형 석조 향아리 분포 지역 등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현재 등재구역에서 확인된 석조 유물들은 ㉠대형의 석조 향아리(jar)와 ㉡묘표석(墓標石, stone 혹은 funerary stone), ㉢둥근 석조 원판(圓板, disk) 등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등재구역 내에서는 총 1939개의 석조 유물이 등록되었다(Lao PDR 2019a, 39, Table 5).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조사들에서는 2019년 등재신

청서에 수록된 유물보다 더 많은 유물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아직까지 새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난 상태는 아니다. 최근 발표된 제노비스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유적들이 좀 더 발견되어 전체 100여개



도 15. 향아리 평원 유적 전경. 제 1유적. 폰사완, 라오스. 출처: Wikimedia

소 이상의 유적이 확인되었고, 2100개 이상의 석조 향아리와 200여개의 석조 원판이 조사되었다. 향아리를 비롯한 각종 석조 유물들은 대체로 사암, 화강암, 석회암, 역암(conglomerate), 각력암(角礫岩, breccia) 등 다섯 종류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Genovese 2020).

씨엥쿠앙 지역의 향아리 평원 유적은 18세기 말 제임스 맥커티(James McCarthy, 1963-1919)가 처음 방문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1888년 피에르 쿠페(Pierre Cupet, 1859-1907)는 이곳을 방문하여 첫 탐험 기록을 남겼으며, 이후에도 종종 프랑스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였다(Genovese 2015; 2019).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1930년대에 프랑스 학자인 마텔라인 콜라니(Madeleine Colani)가 처음으로 시작하여, 1935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Colani 1935a-b). 당시 콜라니는 21개소의 석조 향아리 유적과 5개소의 묘표석 유적을 보고했으며, 이들이 미스테리한 고대 문명의 분묘 유적으로 추정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계속 발표되었다. 한편, 프랑스 식민시기의 향아리 평원 유적은 유럽인들에게 제법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육로로 산을 넘어서 향아리 평원 유적 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며, 거기에서 다시 루앙프라방 방향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비엔티엔 쪽으로 남하할 수 있

었다(Genovese 2015).

콜라니의 조사 이후에 항아리 평원 유적이 본격적으로 조사된 것은 1996년 이후부터이다. 오랫동안 이 지역의 학술적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라오스 북부 지역이 베트남 전쟁과 라오스 내전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전쟁의 폭격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조사는 일본과 라오스의 협력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에는 유네스코의 주도로 <항아리 평원 보호 프로젝트(Safeguarding the Plain of Jars Project/SPJP)>가 시작되었다. 2014년 발표된 로잘리아 제노베스의 박사학위논문은 자력으로 수행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항아리 평원 유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학계에 알리게 된 중요한 논문이다(Genovese 2015). 2016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항아리 평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고고학적 조사가 호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시행되어, 제 1유적(Site 1)을 비롯한 주요 지역들이 발굴 및 조사되었다(O'Reilly 2018; 2019a; 2019b; 2020). 당시 발굴조사된 항아리 평원 유적들은 대부분 고대의 분묘 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축조 시기는 기원 전후부터 기원후 500년경까지의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든 유적들이 조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 세계유산으로서의 당면 과제와 한국과의 관계

항아리 평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구로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유적의 성격 연구가 미진한 점과 이 지역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발탄의 위험으로 인한 불발탄 문제이다. 석조 항아리 유적들이 가장 널리 분포해 있는 씨엥쿠앙의 주도인 폰사완(Phonsavan) 지역은 1960년대부터 1973년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미군

의 폭격이 집중적으로 행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폰사완을 비롯한 라오스 북부 평원지대에 폭격이 집중되었던 이유는 당시 파뎃 라오(Pathet Lao)와 월맹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이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폭격의 피해는 대부분 민간인들이 당했다(Dommen 2001; Zani 2019).



도 16. 각종 불발탄. 폰사완 지역.

출처: Champanakone 2015, 128

항아리 평원 유적도 당시 전쟁의 폭격을 통하여 지형이 변형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고대의 석조 항아리도 상당수가 파괴되거나 사라졌다(Champanakone 2015). 이 지역에는 전쟁 당시 떨어진 수많은 폭탄 잔해물과 수많은 불발탄들이 지금도 상당수 남아 있기 때문에(도 16), 아직까지는 일반 관광객들의 여행이나 학술적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유적 연구와 보호를 위해서는 각종 불발탄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유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1998년 유네스코의 도움을 얻어서 항아리 평원 유적의 보존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외국 조사단의 협력을 받아서 이 지역 연구와 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각종 불발탄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불발탄 제거가 완료된 7개 지역의 유적이 여행자들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관광사업 개발 정책이 한국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기도 했다(구경여 · 안태홍 2019). 아직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새로 등재된 항아리 평원 유적에 대해서 별다른 논의가 없으나, 최근에는 베트남의 옹관묘들과 항아리 평원 유적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여(권오영 · 최영

은 2020), 향후 연구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향아리 평원 유적의 학술적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향아리 평원 유적의 조사와 등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코이카(KOICA)를 통하여 라오스 내의 불발탄 제거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주요 사업지역이 세계유산 등재지구가 있는 씨엥쿠앙의 폰사완 지역이다. 코이카의 불발탄 제거 사업은 2017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0만 달러(당시 32억 원)를 라오스에 지원한 것으로, 비엔티엔을 비롯하여 라오스의 11개주에 남아 있는 불발탄 제거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박대로 2015). 씨엥쿠앙의 향아리 평원 유적 일대도 역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불발탄이 제거되면서, 도로를 비롯한 현지 사정이 훨씬 개선되었음은 확실하다. 2019년 코이카에서는 라오스 불발탄 제거 제2차 사업을 통해서 550만 달러(65억 4700만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사업은 2022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편집부 2019). 이러한 불발탄 제거 사업이 계속된다면, 향아리 평원 유적에 대한 연구 조사와 유적 보호 사업 등이 좀 더 활발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향아리 평원 유적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코이카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한 ODA사업으로 진행되는 세계유산 향아리 평원 유적 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들이 아직까지 국내외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과 거의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향아리 평원 유적에 남아 있는 대형의 석조 향아리들은 직경이 1-3미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 향아리들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016년부터 호주 고고학자들은 씨엥쿠앙의 제 1유적과 제 2유적을 발굴하여 석조 향아리 아래에서 고대

의 인골 및 부장품들을 발견하였다(O'Reilly 2018; 2019a; 2020). 그리하여, 이 석조 항아리들은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후 500년경 정도의 철기시대에 만들어진 분묘 시설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학자 중에는 이들이 고대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는 상인들이 식수 보존을 위해서 빗물 받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최근 발굴조사에서는 항아리 하부나 근처에서 인골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서 장례용 시설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비슷한 유적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고대 라오스 북부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인 미얀마 뽀(Pyu) 시대의 스리 크세트라(Sri Ksetra)지역에서도 형태는 좀 다르지만 왕실의 장례용 석함들이 발견되고 있으며(주경미 2019),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거대한 도제 항아리를 이용한 옹관묘들이 분묘로 사용되었다(권오영 · 최영은 2020).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서도 유사한 대형의 석조 항아리 유적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향후 동남아의 다른 고대 유적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라오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구 3개소를 중심으로, 각각 역사적 현황 및 당면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세계유산 등재지구를 포함한 라오스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모두 라오스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서 근대기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지금도 프랑스 학계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호주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 ODA 사업 증가와 함께,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근대기에 이루어진 프랑스 학자들

의 선행 연구들에 대한 비판과 극복은 라오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역사 및 문화 연구에서 근대적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주의를 넘어서서 현대 동남아시아 각국의 진정한 주체적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크고 무거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향후 라오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국내 문화 보존 사업과 연구를 해나갈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민지시대의 학술적 유산을 국제 학계가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직까지 라오스에는 자연유산과 복합유산은 등재되지 않았다. 2021년 2월 현재 라오스의 유네스코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는 1992년 신청한 ①비엔티엔의 탕루앙(That Luang de Vientiane)과 2019년에 신청한 ②힌남노 국립보호구역(Hin Nam No National Protected Area)이 있다. 불교 사원인 탕루앙은 문화유산이며, 힌남노 국립보호구역은 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특히 힌남노 국립보호구역은 2003년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풍나케방 국립공원과 연결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로서 주목된다(주정미 2017, 104). 향후 이 지역의 등재와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에서는 베트남과의 공조도 필요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서는 다양한 국제 전문가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루앙프라방과 왓푸의 경우에는 프랑스 학자들의 연구 지원이 있었으며, 최근 등재된 향아리 평원의 경우에는 영국과 호주 학자들의 학술적 지원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 아직까지 라오스 정부의 향후 등재신청 정책은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라오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에는 해외 원조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등재 신청에서는 고고학적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된 라오스 북부 지역의 선사시대 동굴 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복합유산의 등재 가능성, 그리고 희귀동식물의 서식지가 많고 자연이 잘 보존된 각지의 자연유산 등재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지

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왓푸 유적에서 진행되는 한국 정부의 문화유산 ODA 사업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진행된 첫 번째 해외 문화원조사업이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문화유산 ODA사업은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라오스 문화유산 ODA 사업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의 고백에서도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업은 사업참여자 개인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국제 문화올림픽과 같은 국가 경쟁력 실험의 장이기도 하다(유재은 2016; ODA18인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사업 진행에서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전문가 교육, 전문서적의 구입과 자료 데이터베이스 축적 및 번역 사업, 국제적 연구 성과 도출 및 홍보 등을 통하여 한국 학계의 내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 승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세계유산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ODA 사업은 단순한 저개발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 세계문화유산 복원 사업은 몇백년 이상의 시간을 지내온 거대한 옛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므로, 단기간에 일회성 지원으로 성과를 내려는 접근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최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보존 정책은 꾸준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문화유산 ODA 사업도 이러한 유네스코의 방향성과 같은 맥락에서, 긴 호흡으로 꾸준히 상대 국가와의 친밀한 교류와 상호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1회성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며 지원 내용과 비용을 결정하는 한국 정부 공무원들의 다소 편협된 시각은 해외 문화유산 ODA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문화 교류 및 원조 사업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당 지역 전문가들의 국제 공여 기회를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

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라오스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무형유산의 개발과 전수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향후에는 세계유산지구의 복원 사업 이외에도 무형유산과 기록유산의 보존과 개발에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서 유네스코의 해외 원조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라오스의 문화유산 보호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라오스의 여러 유적과 자연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인류의 유산으로 등재되는 데에 좀 더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 고 일: 2021년 1월 19일

심 사 완 료 일: 2021년 2월 16일

게 재 확 정 일: 2021년 2월 16일

참고문헌

- 구경여 · 안태홍. 2019.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한 라오스 향아리평원 생애주기별 관광사업개발 정책방안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10(4): 167-180.
- 권오영 · 최영은. 2020. “고대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묘제와 장제.” 『아시아 리뷰』 10(1): 3-26.
- 김호수 · 홍석일 · 김소연 · 김진완 · 유준. 2017. “라오스 홍낭시다 주신전 만다파의 구조적 거동특성 분석.” 『한국공간구조학회지』 17(3): 35-43.
- 문화재청.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대한민국 유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22일).

- 박대로. 2015. “코이카, 라오스 불발탄 제거사업 32억원 지원.” 『중앙일보』 (5월 5일).
- 박정아. 2016. “14-18세기 라오스 란쌍시대 목조사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백경환. 2019. “라오스 홍낭시다 보존복원.” 『월간문화재』 394: 16-19.
- 비앙케오 수크사밧디. 2013. “라오스의 무형유산 목록 작성.” 『ICH Courier 한국어판』 16: 10-11.
- 양승윤 외. 2005. 『캄보디아·라오스』 개정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en.list> (검색일: 2021. 01. 1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 (검색일: 2021. 01. 10).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세계유산 새천년을 향한 도전』.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_____. 2014.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재청.
- _____. 2019. 『2019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재은. 2016.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현황과 과제.” 『문화재』 49(3): 270-285.
- 이요한. 2009. “한국의 대(對)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9(1): 185-213.
- _____. 2013. 『메콩 강의 진주, 라오스』. 서울: 한울.
- _____. 2019. “라오스 2018: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정치경제적 도전.” 『동남아시아연구』 29(1): 27-47.
- _____. 2020. “라오스 2019: 메콩 내륙국가에서 연계국가로의 전환.” 『동남아시아연구』 30(2): 89-116.
- 이재성·김동민·전유근. 2019.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출토 금동요니의

- 과학적 보존처리.” 『제50회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국립문화재연구소·(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학회.
- 이찬희 · 신효철 · 한두루. 2017. “라오스 밋푸 주사원의 보존현황과 석재의 초음파 물성 및 구조적 변형특성.” 『보존과학회지』 33(6): 399-416.
- 이치현. 2018.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복원현장에서 출토된 가네샤 석상.” 『문화유산채널』 (3월 12일).
<http://www.k-heritage.tv/brd/board/909/L/CATEGORY/911/menu/901?brdType=R&thisPage=1&bbIdx=13735&searchField=&searchText=> (검색일: 2021. 01. 10).
- 이태주. 2015. “문화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십 전략 -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재청.
- 전유근 · 백경환 · 조보경 · 케오카냐 찬티마 · 시빌라이 콤파바이. 2019a.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석재 보존처리 방법론.” 『제50회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국립문화재연구소·(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 전유근 · 진홍주 · 장성윤 · 김수경 · 이명성 · 문동혁. 2019b.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출토 갈유도기와 기와의 원료특성과 제작기술 해석.” 『한국광물학회지』 32(4): 273-285.
- 조흥국. 2010.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소수민족 차별.” 『민족연구』 43: 140-159.
- _____. 2013. “18세기 말-19세기 초 상호관계에 대한 라오스와 태국의 역사인식.” 『동남아연구』 22(3): 237-267.
- _____. 2016a. “타오 수라나리(Thao Suranari)와 1820년대 라오스-태국 전쟁에 대한 역사논쟁.” 『역사와 세계』 49: 1-31.
- _____. 2016b. “라오스 화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로컬리티 인문학』 16: 175-203.

- 주경미. 2017. “베트남의 세계유산 등재현황과 특징.” 『박물관 보존과학』 18: 93-114.
- _____. 2019. “뽕 시대의 문화와 주요 유적.”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 진흥주 · 김수경 · 이명성 · 전유근. 2019.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진단구공 내 토양 특성 분석.” 『제50회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국립문화재연구소·(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학회.
- 편집부. 2019. “코이카, 라오스 불발탄 2차 사업 약정식 개최.” 『국민일보』 (5월 15일).
- 한국문화재단. 2015.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국제 심포지엄』. 서울: 문화재청 · 한국문화재단.
- _____. 2017. 『2014~2015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1차) 보고서』. 서울: 한국문화재단.
- _____. 2019.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2, 3차) 보고서』. 서울: 문화재청 · 한국문화재단.
- _____. 2020. 『크메르 제국의 고대 성지: 잊혀진 신들의 낙원 - 라오스 왓푸-참파삭 세계문화유산 가이드북』. 서울: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
- ODA 18인. 2020. 『난생 처음 떠나는 문화유산 ODA 여행』. 서울: 문보재.
- Bear, Lior, Jackie Feldman & Nir Avieli. 2020. “The Politics of Authentication in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Luang Prabang, Laos.”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8(4): 404-420.
- Berliner, David. 2012. “Multiple Nostalgias: the Fabric of Heritage in Luang Prabang(Lao PDR).”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8(4): 769-786.
- Bunker, Emma C. & Douglas Latchford. 2004. *Adoration and Glory: The*

- Golden Age of Khmer Art*. Bangkok and Chicago: Art Media Resources Ltd.
- Champanakone, Xaixana. 2015. *Journey into the Heartland - Essay on the Archaeology, History, and Rivivals of Laos*. Vientiane: Dokked Publishing House.
- Coedès, Georges. 1956. "Nouvelles données sur les origines du royaume khmèr: la stèle de Vāt Luong Kǎu près de Vāt P'hu."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48(1): 209-220.
- Colani, M. 1935a-b. *Mégalithes du Haut-Laos*. 2 volumes. Paris: Publications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nos Les Éditions d'art et d'histoire.
- Davies, Ben. 2007. *Luang Prabang: Lao Royal Heritage*. Bangkok: Asia Horizons Books Co., Ltd.
- Dearborn, Lynne Marie & John Charles Stallmeyer. 2009. "Re-visiting Luang Prabang: Transformations under the Influence of World Heritage Designation."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7(4): 247-269.
- Dommen, Arthur J. 2001. *The Indochinese Experience of the French and the Americans: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Cambodia, Laos, and Vietna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Doungwilai, Channipha. 2012. "The Prabang Myths: The Sacred Narratives and their Cultural Meaning." *The Journal of Lao Studies* 3(1): 51-64.
- Evans, Grant. 2002. *A Short History of Laos: The Land in between*. Singapore: Allen & Unwin.
- Genovese, Lia. 2015. "The Plain of Jars onf North Laos - Beyond Madeleine Colani." Ph. D. dissertation. SOAS, University of London.

- _____. 2019. "The Birth of French Research into the Prehistory of Laos." Desly Goldston, ed. *Engaging Asia: Essays on Laos and Beyond in Honour of Martin Stuart-Fox*. Copenhagen: NIAS Press.
- _____. 2020. "Widening the Geographical Reach of the Plain of Jars, Laos." *The Journal of Lao Studies* 7(1): 55-74.
- Giteau, Madelein. 2001. *Art et archéologie du Laos*. Paris: Picard.
- Heywood, Denise. 2014. *Ancient Luang Prabang & Laos*. Revised Edition. Bangkok: River Books.
- Ivarson, Soren. 2008. *Creating Laos: The Making of a Lao Space between Indochina and Siam, 1860-1945*. Copenhagen: NIAS Press.
- Khutthao, Bounkhong, Montira Horayangura Unakul & Rik Ponne, eds. 2007. *Buddhist Temple Arts of Luang Prabang*. Luang Prabang: Department of Informantion and Culture.
- Kuttkhao, Bounkhong, Phayvanh Chanthasouk, Veunxay Malavong, Montira Unakul, Steven Schipani, Graem Harper & Rik Ponne, eds. 2010. *A Training Manual for UNESCO-LNTA Guide Training Workshop Luang Prabang, Lao PDR*. Luang Prabang: UNESCO. <https://www.mekongtourism.org/wp-content/uploads/2015/05/LNTA-Cultural-Heritage-Specialist-Guide-Training-Luang-Prabang-Site-Module.pdf> (검색일: 2021. 02. 01).
- Lall, Vikram. 2014. *The Golden Lands, Cambodia, Indonesia, Laos, Myanmar, Thailand & Vietnam: Architecture of the Buddhist World*. Kuala Lumpur: JF Publishing.
- Lao PDR. 2001. *Nomination of Vat Pho and Associated Ancient Settlements within the Champasak Cultural Landscape*. Paris: UNESCO.
- _____. 2019a-d. *Megalithic Jars Sites in Xiengkhuang - Plain of Jars World Heritage Nomination*. 4 Volumes. Paris: UNESCO.
- Larsen, Peter Bille & William Logan. 2018. *World Heritage and*

-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World Heritage Management*. New York: Routledge.
- Leong, Ceelia, Jun-ichi Takada & Shinobu Yamaguchi. 2016. "Analysis of the Changing Landscape of a World Heritage Site: Case of Luang Prabang, Lao PDR." *Sustainability* 8(747): 1-23.
<https://doi.org/10.3390/su8080747>.
- Long, Colin & Jonathan Sweet. 2006. "Globalization, Nationalism and World Heritage: Interpreting Luang Prabang." *South East Asia Research* 14(3): 445-469.
- Lorillard, Michel. 2010. "Introduction - Du Centre à la marge: Vat Phu dan les études sur l'espace khmer ancie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97/98: 187-204.
- _____. 2014. "Pre-Angkorian Communities in the Middle Mekong Valley (Laos and Adjacent Areas)." Nicolas Revire & Stephen A. Murphy, eds. *Before the Siam: Essays in Art and Archaeology*. Bangkok: River Books.
- _____. 2018. "Research on the Inscriptions in Laos: Current Situation and Perspectives." Danial Perret, ed. *Writing for Eternity: A Survey of Epigraphy in Southeast Asia*. Études Thématique 30. Paris: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O'Reilly, Dougald, Louise Shewan, Julie Van Den Bergh, Samlane Luangaphay & Thonglith Luangkoth. 2018. "Megalithic Jar Sites of Laos: A Comprehensive Overview and New Discoveries." *Journal Of Indo-Pacific Archaeology* 42: 1-31.
- O'Reilly, Dougald, Louise Shewan, Kate Domett, Si n E Halcrow & Thonglith Luangkoth. 2019a. "Excavating among the megaliths: recent research at the 'Plain of Jars' site 1 in Laos." *Antiquity*

93(370): 970-989.

- O'Reilly, Dougald, Louise Shewan, M. Khampouvong & B. Butphacit. 2019b. "Research at Megalithic Jar Site 52 and the discovery of new jar sites in Xiang Khouang Province, Laos." *Asian Archaeology* 3: 21-33.
- O'Reilly, Dougald, Nicholas Skopal, Souliya Bounxaythip, Louise Shewan, Thonglith Luangkhoth & Julie Van Den Bergh. 2020. "Jars of the jungles: A report on newly discovered and documented megalithic jar sites 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sian Archaeology* 3: 9-19.
- Parmentier, Henri. 1914. "Le Temple de Vat Phu."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4(2): 1-31.
- _____. 1954a-b. *L'Art du Laos*. 2 volumes (Text and Planches). Hanoi: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Pholensa, Vathana. 2006. *Post-war Laos: The Politics of Culture, History and Identity*. Bangkok: Silkwarm Books.
- Rampon, Lourent. 2003. "Les Monastère de Luang Prabang: Note sur la typologie des sanctuaries." *Aséanie* 12: 51-71.
- Rie, Odajima. 2020. "Theatrical Governmentality and Memories in Champasak, Southern Laos." *Southeast Asian Studies* 9(1): 99-129.
- Srinivasan, Doris Meth. 1997. *Many Heads, Arms and Eyes: Origin, Meaning and Form of Multiplicity in Indian Art*. Leiden: Brill.
- Starin, Dawn. 2008. "World Heritage Designation: Blessing or Threat?" *Critical Asian Studies* 40(4): 539-652.
- Stuart-Fox, Martin. 1998. *The Lao Kingdom of Lān Xāng: Rise and Decline*. Bangkok: White Lotus Press.
- Suntikul, Wantanee. 2008.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Monks of Luang Prabang."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 Symposium: Finding the Spirit of Place - Between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Quebec: ICOMOS Scientific Symposium.
- Tam, Lui. 2017. “World Heritage for Whom? :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and Community Development of Luang Prabang.” Joaquim Rodrigues dos Santos ed. *Preserving Transcultural Heritage: Your Way or My Way?* Portugal: Caleidoscopio.
- UNESCO. 2004. *IMPACT - The effects of tourism on culture and the environment in Asia and the Pacific: Tourism and Heritage Site Management in the World Heritage Town of Luang Prabang Lao PDR*. Bangkok: UNESCO.
- Vongvilay, Xayaphone, Jai-Eok Shin, Young-Hwan Kang, E-Doo Kim & Joonng-Hyun Chi. 2015a. “The Influence of French Colonial Rule on Lao Architecture with a Focus on Residential Buildings.”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14(2): 279-286.
- Vongvilay, Xayaphone, Young-Hwan Kang & Joong-Hyun Choi. 2015b. “The Impact Factors Causing Transformation of Lao Traditional House - Case Study of Luangprabang, Lao PDR.”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2): 1-12.
- Wikim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171115_Plain_of_Jars_-_archaeological_site_number_1_-_Laos_-_2538_DxO.jpg (검색일: 2021. 01. 08).
- Wilcox, Phill. 2020. “Luang Prabang, a World Heritage Town: UNESCO, Tourism and Rising Chinse Influence.” *Journal of Lao Studies* 7(1): 121-136.
- Zani, Leah. 2019. *Bomb Children: Life in the Former Battlefields of Lao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World Heritage Sites in Laos

Kyeongmi J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survey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hre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n Laos under the cultural and historical view. The first site is the “Town of Luang Prabang”, which is inscribed in 1995, which was the ancient capital of Lan Xang dynasty and the modern colonial state city. The second site is “Vat Phou and Associated Ancient Settlements within the Champasak Cultural Landscape” in Champasak region. This site was composed of the ancient religious monuments with sacred landscape of Lingaparvata mountain, which were built in Angkor style of Khmer culture. The third and new site is “Plain of Jars: Megalithic Jar Sites in Xiengkhuang” in the northern region. The government of Korea has been involved in the Cultural ODA project of UNESCO World Heritage Sites for the reconstruction works at the Vat Phou Heritage Site in Laos after 2011. The reconstruction project for Hong Nang Sida temple site in Vat Phou World Heritage Site by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has been performed during last ten years and it will sustain until 2030 by Korean Governmental Fund. Here I

also review the current cultural landscape and problems of these three radical changing World Heritage Sites in Laos regarding with the recent Lao-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cultural relationships.

Keywords: Lao PDR. Cultural Heritage ODA Project. Korea.

Vat Phou. Luang Prabang. Plain of Jars.